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수출 및 협력 기대 분야는?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27일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매력이 높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구매 성향을 보여 제품 경쟁력에 관세 인하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방 뿐 아니라 IT, 서비스 산업, 기술 창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스라엘의 혁신적 가치와 우리 제조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01. 한이스라엘 FTA 추진 배경

- 40개국과 7개의 FTA를 발효중인 이스라엘은 미주, 유럽권 등에 집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하고 성장하는 아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FTA를 추진하고자 함

- 이스라엘은 미주권, 유럽권 등과 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아시아 국가와 FTA는 인도 외에는 추진된 바 없음

이스라엘의 FTA 추진 현황

발효(7건, 40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중
미국(1985), EFTA(4개국, 1993), 캐나다(1997), 터키(1997), EU(28개국, 2000), 멕시코(2000), MERCOSUR(4개국, 2010)	콜롬비아(2013.9, 서명), 파나마(2015.11, 타결)	인도, 우크라이나, 한국(2016.6, 개시)

주 : 1. 요르단과 이집트와의 무역협정은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관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 협정으로 제외함
2. 류옌둥(Liu Yandong) 중국 부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계기로 양국은 FTA 개시를 동의한 바 있음(2016.3.29.)
자료 : 이스라엘 경제산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 이스라엘은 수출의 54.2%, 수입의 46.1%가 EU, 미국에 집중된 구조로 아시아권과의 FTA 추진을 계기로 무역 및 협력 강화 기대

*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 2015년) : 미국(28.8), EU(25.4), 중국(5.1), 일본(1.2), 한국(0.9)
수입 비중(% , 2015년) : EU(33.2), 미국(12.9), 중국(12.9), 일본(2.3), 한국(1.9)

- 이스라엘의 주요 교역 대상인 유럽권 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과 수출 부진으로 아시아 국가와 무역 확대를 위해 FTA 추진을 희망함(한국, 인도, 중국 등)

- 한국도 이스라엘과 FTA 체결시 이스라엘 시장에서 일본, 중국에 비해 열세인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고 미국, EU와 동등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됨

02. 한이스라엘 무역 동향

◎ 2015년 한-이스라엘 무역은 20.5억 달러로 2011년 25.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감소 추세

- 對이스라엘 수출은 2011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후 주력 품목인 승용차, 선박, 휴대폰 등의 부진으로 2015년 11.8억 달러로 감소
 -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 수출은 2011년 3.3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4년부터 급감해 2015년은 1만 달러에도 못 미침
 - 다만 올해 1~5월중 승용차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

◎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49위 무역상대국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올해 들어 42위로 상승함

· 한국 무역에서 이스라엘 위치(2015년)

	순위	비중(%)
무역	49위 (42위)	0.21 (0.28)
수출	51위 (42위)	0.22 (0.30)
수입	46위 (43위)	0.20 (0.25)

· 이스라엘 무역에서 한국 위치(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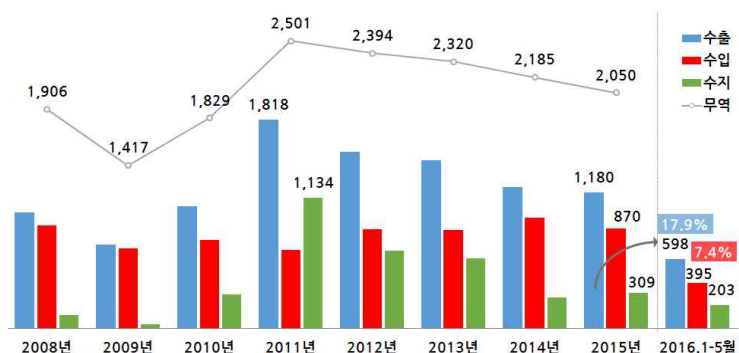
	순위	비중(%)
무역	17위	1.38
수출	19위	0.92
수입	17위	1.86

주 : ()는 2016.1~5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이스라엘 통계청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별로는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부품 등의 비중이 높음

한국의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2015	2016.1~5월			품목명	2015	2016.1~5월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1	승용차	511	269	12.5	45.0	반도체 제조용 장비	110	37.7	-26.0	9.4
2	무선전화기	93	41	16.5	6.8	항공기 부품	62	15.6	24.9	8.5
3	합성수지	90	35	8.6	5.8	무선통신기기 부품	51	25.4	59.8	8.2
4	기타 정밀 화학원료	16	26	236.1	4.4	고속도강 및 초경공구	47	-8.3	0.0	6.2
5	컬라TV	38	19	12.4	3.1	동괴 및 스크랩	39	-27.2	-5.8	5.2
6	건설중장비	34	18	-0.6	3.0	집적회로반도체	37	-50.9	16.7	3.9
7	자동차부품	31	15	9.1	2.4	전자현미경	29	-38.2	33.8	3.4
8	반도체 제조용 장비	8	10	121.7	1.6	나프타	26	-64.4	410.9	2.5
9	무선통신기기 부품	11	8	105.1	1.3	분석시험기	25	59.9	705.2	2.2
10	커피류	22	7	-28.5	1.2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0	-44.7	-61.2	2.0
소계		854	446	17.4	74.6	소계	446	-15.2	22.9	51.5
총계		1,180	598	17.9	100.0	총계	870	-9.3	7.4	100.0

주 : MTI 4단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03. 이스라엘의 관세 현황

-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은 수준이지만 자국 산업 기반이 있는 품목은 고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FTA 추진에 따른 관세 혜택은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이스라엘의 對세계 수입액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2.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은 1.9%, 농산물은 14.3% 유지

양국의 MFN 실행관세율 현황

(단위 : %)

	이스라엘			한국		
	전품목	농산물	제조업	전품목	농산물	제조업
단순평균	4.6	12.3	3.3	13.3	52.7	6.8
가중평균	2.8	14.3	1.9	8.0	93.2	3.7

주 : 단순평균은 2014년 HS 코드 기준, 가중평균은 2013년 수입액 기준
자료 : WTO

- 이스라엘은 수입액 기준으로 무세 비중이 77.7%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에 제조기반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12%의 관세율 부과
- * 무세 비중 : ① 이스라엘 : (수입액) 77.7%, (품목수) 64.9%, ② 한국 : (수입액) 34.1%, (품목수) 34.1%
- 이스라엘과의 FTA 추진은 아시아권 국가의 저가 공세 및 무관세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유럽권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제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주요 수출 제조품에 대해 6~1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 추진은 자동차 및 부품, 냉장고, 공기조절기 부분품 등의 우리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이스라엘은 품목에 따라 구매세(purchasing tax)가 있음. 구매세는 부가세와 별도로 수입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구매세 적용시 FTA 국가와의 가격 차이는 관세율 격차 이상으로 확대됨

한국의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 관세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관세율		수입액			경쟁국(점유율)
이름	HS	MFN	FTA	세계	한국	점유율	
승용차	8703	7.0	0.0	3128.4	455.3	14.6	일본(16.0), 터키(11.3)
자동차부품	8708	6.0	0.0	293.1	19.9	6.8	독일(18.3), 중국(12.2)
냉장고	841810	12.0	0.0	63.7	13.1	20.6	터키(25.4), 태국(16.2)
공기조절기부분품	841590	10.5/12.0	0.0	94.0	11.3	12.1	중국(46.2), 싱가포르(14.0)
리프트 등 장비	842810	6.0	0.0	99.5	4.0	4.0	스페인(33.6), 핀란드(19.3)
편물(탄성사 5% 이상)	600410	6.0	0.0	22.6	3.9	17.3	터키(43.7), 중국(29.5)
오토바이	871120	7.0	0.0	25.3	3.3	13.1	대만(33.7), 오스트리아(11.4)

주 : 1. FTA 관세율은 이스라엘이 발효한 7건의 FTA에서 상대국에게 양허한 관세율, 수입액 기준은 2015년
2. MFN 관세율은 해당 품목 중 한국의 이스라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관세율을 표기함
자료 : 이스라엘 통계청, <http://ozar.mof.gov.il/ita2013/eng/mainpage.htm>,

04. FTA 추진에 따른 수출 확대 및 협력 기대 분야

(1) FTA 관세 철폐 기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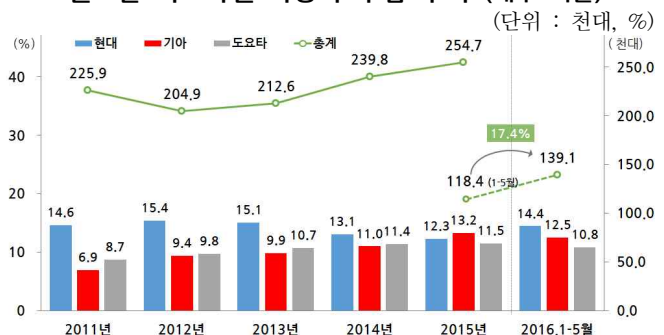
- (승용차) 이스라엘의 실용적 구매 성향으로 한국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관세 철폐시 우리의 주력 품목인 승용차 수출 확대 기대
 - (대수 기준) 이스라엘 수입차 수요는 최근 증가세로,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이스라엘의 수요와 맞물려 현대, 기아차가 수입차 점유율 1, 2위를 차지
 - 이스라엘 수입 자동차 수요는 2012년 이래 연평균 7.5%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6.1~5월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
 - 제조 브랜드 기준으로 현대차가 2만 80대를 판매해 1위(점유율 14.4%, 2016.1~5월)를 기록했으며 기아차는 1만 7334대를 판매해 2위 차지
 - (금액 기준) 국가별로 승용차 수입액은 준중형차(1000cc초과 1500cc이하)의 경우 한국이 점유율 1위(가솔린 17.5%, 디젤 24.8%), 중형차(1500cc초과 3000cc이하)의 경우 점유율 2위(14.9%)로 이스라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
 - 현대의 터키산, 체코산 차량과 기아의 슬로바키아산 차량을 포함할 경우, 국내 브랜드 차량의 실제 판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 (현대) 한국산 50%, 터키산 37%, 체코산 14%, (기아) 한국 58%, 슬로바키아 42%
- 이스라엘은 승용차에 대해 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국가별 이스라엘 승용차 수입 추이 (금액 기준)

품목	HS	수입액 및 국가별 점유율	
		금액	점유율
준중형차	870322 (가솔린)	10.3	① 한국(17.5), ② 체코(15.1), ③ 터키(10.8), ④ 스페인(9.5)
	870332 (디젤)	1.6	① 한국(24.8), ② 체코(17.4), ③ 독일(12.4), ④ 스페인(10.3)
중형차	870323 (가솔린)	15.1	① 일본(24.3), ② 한국(14.9), ③ 슬로바(11.4), ④ 터키(11.1)

자료 : 이스라엘 통계청

브랜드별 이스라엘 자동차 수입 추이 (대수 기준)



주 : 자동차는 승용차, SUV, 택시 등을 포함
자료 : Israel Vehicle Importers Association

- (기계 및 부품)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IT, 기술혁신에 기반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어 전통적 제조업 분야인 기계 및 부품 등의 시장을 공략할 필요

【 사례 】 기계 부품 수출

“5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신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우리나라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하나 중국산 저가공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보다 FTA를 빠르게 추진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 또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이스라엘 스프링클러 부품 수출 기업 -

◎ (건설 및 주택)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인프라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 (건설) 철도, 에너지(천연가스 발전소, 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으로 건설 중장비 수입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자재 뿐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기대

* 주요 품목 수입시장(2015년 수입액, 5년간 연평균 증가율) : ① 불도저(HS 8429) 2.3억 달러, 149.1%, ② 적하양하용 기계류(HS 8428) 1.7억 달러, 111.1%, ③ 지게차(HS 8427) 1.2억 달러, 77.1%

• (주택 및 관련 제품) 이스라엘의 핵가족화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거용 아파트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 건설용 기계·자재 뿐 아니라 가구, 주방, 욕실 용품 등 홈 제품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 건설주택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는 이스라엘 전역에 주거 아파트 약 20만 채 신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10만 건의 주택 신규 건설을 승인한바 있으며 2016년에도 10만 건 건설을 목표로 함

(2) 협력 확대 기대 분야

◎ (기술 협력) 독창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다양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 있음

• IT(스마트 산업),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제조업에 혁신적 가치 도입 기대

【 기술협력 사례 】 대구텍 (舊대한중석, 절삭공구 생산)

대구텍은 이스라엘 이스카(ISCAR)에게 인수된 이후 기술협력 뿐 아니라 이스카의 선진 경영방식 도입으로 합리적, 혁신적 회사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는 대구텍의 수출 성과로 이어져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의 지사 및 전문 대리점을 통해 전체 매출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 전체 매출 70% 수출, 3억 불 수출의 탑 수상(2012년)

①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저가제품 → 고품질 제품 및 비용절감 컨설팅 제공)

대구텍은 이스라엘 테판 산업단지 있는 이스카 본사를 찾아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 연수 등 양국간 인적 교류로 기술을 공유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舊대한중석이 저가 제품 수출에 그쳤다면 대구텍은 이후 고객사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공정 개선과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 솔루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② 이스라엘 경영방식 도입 (자동화, R&D 투자)

대구텍 경영진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하고 고된 업무는 기계가 하고, 기존 업무의 개선을 가져오는 일,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란 가치관 아래 기존 제조 설비를 모두 자동화하였으며 설비, 기술 등 본질적인 것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다.

앞서가는 회사를 따라잡기 위해 쉽고 빠른 방법인 카피(copy)를 선택하기 보다는 “창의성”, “독창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목표를 직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인력의 10%가 R&D를 담당

* IMC그룹(International Metalworking Companies B.V.)은 이스라엘 테판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절삭공구 제조기업이며, 이스카(이스라엘), 대구텍(한국), 탕가로이(일본) 등 50여 개국에 14개 주력사, 10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함

대구텍은 IMC 그룹의 계열사로, IMC 그룹(이스카)에 인수(1998.8월)되어 사명을 대한중석에서 대구텍으로 변경

자료 : 대구텍 방문 인터뷰

◎ FTA를 계기로 벤처기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 유망

- 이스라엘은 혁신 기술을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는 기술 인큐베이터, 요즈마 펀드 등의 창업 지원 제도뿐 아니라 이를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어 이스라엘의 선진 시스템 도입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창업지원 사례 】 양국 협력을 통해 요즈마그룹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요즈마(YOZMA)는 히브리어로 ‘혁신’을 뜻한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에서 출범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회사로 요즈마펀드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였으며 유망한 원천 기술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스라엘 주력산업인 보안, IT, 의료 관련 기업에게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능통한 기술가치 평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0여개가 넘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거나 글로벌 기업에 매각한 바 있으며 설립 당시 2.65억 달러(민간 60%, 정부 40%) 규모 펀드로 시작되었으나 10년 만에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의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전 세계 벤처펀드의 35%가 이스라엘로 유입되고 있다.

요즈마그룹, 한국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2014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요즈마그룹은 지난 3월 22일 분당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요즈마캠퍼스를 개소하였다. 요즈마캠퍼스는 벤처 인큐베이터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외의 지역에 요즈마캠퍼스가 설립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글로벌프런티어 연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요즈마그룹의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 및 글로벌 진출 성과확산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료 : 요즈마그룹 홈페이지 및 기사

05. 결론 및 시사점

- ◎ 이스라엘은 IT, 기술 창업, 서비스 산업이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어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이스라엘 FTA로 관세 철폐시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이란, 쿠웨이트 등 여타 중동국가에 비해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높은 구매력에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구매성향을 보여 우리 제품 신뢰성에 가격 경쟁력이 더해질 경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과 FTA 체결시 아시아 국가 최초이며 조속한 FTA 추진으로 시장 선점 노력 필요
- ◎ 아울러 FTA 추진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IT, 서비스업, 기술 창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어 이스라엘의 혁신적 가치가 우리 제조기술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참고 이스라엘 경제 현황 (2015년)

	명목 GDP(십억 달러)	경제성장률(%)	1인당 GDP(달러)	인구(백만 명)
이스라엘	296	2.6	35,343	8.4
한국	1377	2.6	27195	51

자료 : IMF